

우리는 같은 강물에 몸을 두 번 적실 수 없다

February 2011 | 장승연 기자

Page 1 of 7



작가 | 인터뷰

우리는 같은 강물에 몸을 두 번 적실 수 없다

글 | 장승연 기자



■ **최재은** 1953년 서울 출생. 1976년 일본으로 건너가 소게츠(荻月)회관에서 수학한 후, 영화감독이자 소게츠파의 3대 거장 중 한 명인 데사기하라 히로시(徳志喜原宏)에게 사사 받았다. 1984년 소게츠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연 후 일본 한국 유럽에서 전시를 열었다. 제46회 베니스비엔날레(1995)에 일본 국가관 대표작가로 참여했으며, 삼성의료원 조형 설치물(시간의 방향)(1994), 해인사 성철스님 사리탑(선의 공간)(1998) 등 대규모 야외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도쿄와 베를린에 거주하며 활동 중이다.

오른쪽 페이지
위 · (현상의 이면 1003017080220)
컬러 사진 100×143cm 2010
아래 · (영원과 하루) 5채널 비디오 설치 2010

2010년 11월 중순의 도쿄는 이미 겨울 언저리로 접어들어 서울보다 한층 따뜻했다. 시나가와구 주택가에 위치한 하라미술관은 여유로운 늦가을의 날씨를 맘껏 품은 채 푸른 정적으로 가득했다. 1938년 유명 건축가 진 와타나베(渡邊仁)가 설계한 바우하우스 형식의 건물은 지난 7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듯 고풍스럽다. 1979년 미술관으로 개관하기 전까지 개인 주택이었던 탓인지, 사람의 온기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늑함도 풍긴다. 정원수들의 굵은 두께와 울창한 높이 또한 그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레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수십 년의 연륜이 배어 있는 이 나무들 사이로, 최재은은 미술관 내부에 또 하나의 숲을 일구고 있었다. 바로 '아쇼카(Aśoka)의 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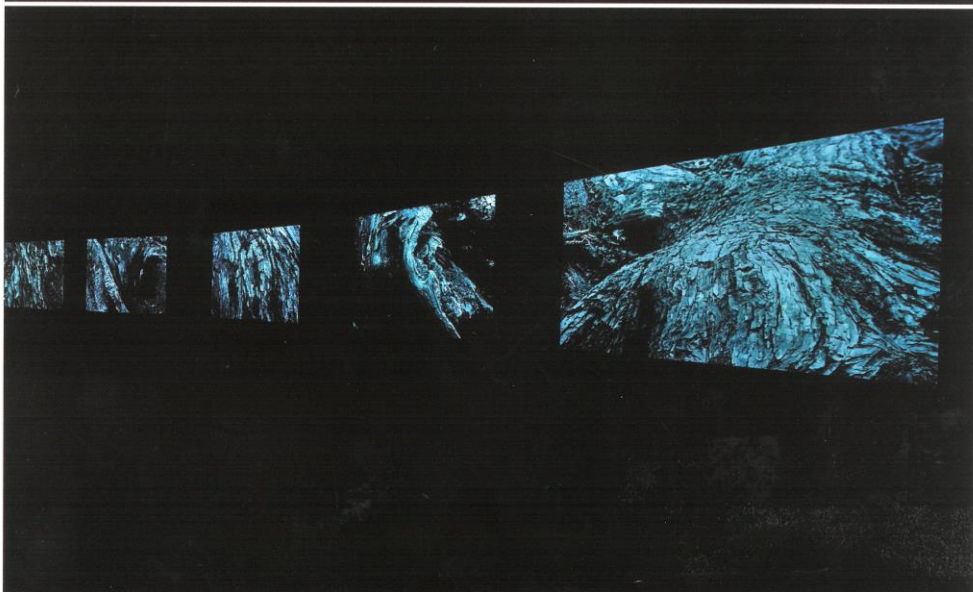
시간을 느끼는 명상의 시간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작가 최재은과 함께 기사를 반긴 것은 희미하게 느껴지는 오래된 나무향이다. 입구 바로 앞 전시 공간(아마도 예전에는 누군가의 방이었을) 안에 기다란 나무대가 가지런히 쌓인 채 뻗어 나오는 모습이 눈을 사로잡는다. 이 설치 작품의 제목이 바로 〈아쇼카의 숲〉, 이번 전시 제목이기도 하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18세기의 생활 방식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아미시(Amish)’ 인들이 건물을 지었다 버린 나무들을 모아 재활용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먼지를 닦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색이 다시 나오더군요. 나무향도 너무 은은하지요?” 도끼 자국마저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나무대 너머로, 마침 전시장 벽 가운데에 난 창문에서 정원의 푸른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게 보인다. 미술관 안과 밖의 나무들이 자연스레 연결되길 바란 작가의 의도를 눈치챈 즈음, 작가가 쌓여 있는 나무대 위를 조심스레 걸어 보라고 권한다. 그리곤 나무 위로 슬금슬금 발을 내딛는 기자에게 말했다. “나무가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은은한 향기를 느껴 보세요.” 이렇듯 이번 전시에서 최재은이 선택한 메타포는 바로 ‘나무’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작업 〈과거-미래〉와 같이, 작업 초창기부터 ‘나무’를 작업에 줄곧 따워 왔습니다. 이번 전시의 경우는 인도의 대제 아쇼카 설화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불교 전파자라도 유명한 아쇼카 왕은 국민들에게 각기 다른 목적의 다섯 가지 나무를 심고 돌볼 것을 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치유를 위한 나무, 과일을 위한 나무, 땀감을 위한 나무, 집을 짓기 위한 나무, 꽃을 위한 나무였어요. 아쇼카는 이를 ‘다섯 그루의 작은 숲’이라고 불렀죠. 저는 이 다섯 그루의 나무가 암시하는 본질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 의미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은은 지난 30여 년의 작업 여정 동안 한결같이 ‘시간과 생명’이라는 주제에 몰두해 왔다. 언뜻 2007년 로댕갤러리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 〈루시의 시간〉전을 떠올렸다. 작가는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300만 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화석, 즉 ‘루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류의 기원을 메타포로 끌어 들였다. 당시 작가가 한백옥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루시〉를 통해 최초의 인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거대한 시간의 영역과 그 속의 존재에 대한 인류학적 성찰을 형상화했다면, 이번에는 ‘나무’라





우리도 결국 하나의 흐르는 존재
시간 속의 존재일 뿐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입니다.
죽음에 도달하는 유한적인 존재로서
누구든 시간론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구요.
그렇기에 시간은 너무나 경이롭고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는 한결 가까운 소재를 통해 '시간' 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명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층 규모의 미술관 곳곳에 자리한 작품에는 '나무' 에 배어 있는 시간과 이것을 관찰하고 작품에 담아내는 작가의 시간이 교차되어 있었다. 후지산의 수 천년된 거대한 나무 뿌리를 클로즈업하여 5개의 영상으로 보여 주는 <영원과 하루>는 거대한 나무 뿌리의 흠부터 이끼 같은, 무수한 세월을 겪으며 생겨난 흔적들을 조용히 비춘다. 언뜻 보면 정지된 화면 같지만 오랜 시간 들여다 보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며 나무를 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이 나무에 남겨 놓은 시간성, 이것을 천천히 영상에 담은 과정의 저의 시간성, 그리고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간성이 함께 교차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음악가 다카다 미도리(高田みどり)가 작곡한 장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 나무가 그렇게 거대해지기까지 겪었을 긴 세월의 흔적을 평소보다 몇 곱절 늘어난 느린 시간으로 목도하자니, 자연과 시간에 대한 숭고함이 새삼 마음 한 편에서 고개를 든다.

나무, 인간의 진정한 정신적 증재자

이번 개인전에서 최재은은 '사진' 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 <현상의 이면> 시리즈는 깊은 숲 속 안에 들어가 촬영한 여름 풍경, 멀리서 전체 산을 조망해 촬영한 겨울 풍경을 담았다. 장시간 노출을 두고 촬영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마치 자연의 색으로 그려 낸 한 폭의 추상화처럼 변저 있다. "사진이라는 형식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성 속도 거리를 다루는 과정에서 빛처럼 빠른 속도로 자연을 담을 수 있는 표현 방식이 필요했어요. 계절이라는 시간의 변화를 겪고 있는 자연을 긴 시간 동안 렌즈에 담았습니다."

둘 그곳에 담긴 물에 나무의 영상을 비춰 낸 <또다른 달>, 24시간 동안 하나의 나무를 촬영하고 편집해 시간의 변화를 담은 영상 <흐름>, 좁은 틈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숲속 장면을 비추어 어두운 숲에 들어가기 직전의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숲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가> 등 모든 전시작이 태극점부터 이어져 온, 나

무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와 인생을 아우르는 거대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대자연과 함께 보냈을 터이다. 여러 사람의 팔을 합쳐도 돌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 앞, 한줄기 빛줄기만이 비치는 어두운 깊은 숲 속에서 자연과 대면하는 순간의 감정은 과연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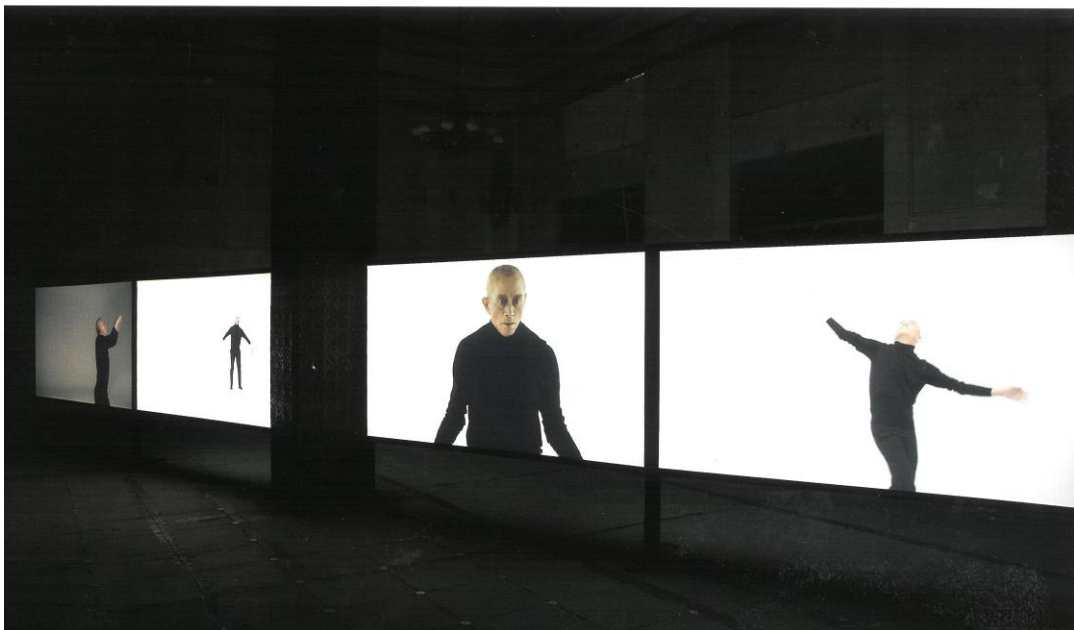
“처음엔 깊은 숲 속에 들어가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을 즐기게 됐어요. 때론 신성함도 느낍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 그 신성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집 뒤편에 숲이 있습니다. 오전 시간을 습관적으로 숲에서 보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하죠. 매일 만나 는 나무들이 변화가는 과정을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최재은은 “진정한 인간의 정신적 존재자”에 다름 아닌 이 나무들, 미술관 곁을 둘러싼 자연의 숨결 역시 전시장 안 가까이 불러 들여 놓았다. 사진 시리즈를 전시한 공간은 일부러 창문의 블라인드를 반쯤 열어 둔 것이다. “전시를 보는 이들이 바깥 단풍나무에 든 시간도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열어 두었죠.” 나무의 시간성, 작가의 시간성, 관람객의 시간성 외에도 이 오래된 공간의 시간성이 한 겹 더 덧입혀지는 것이다.

하나의 명상 체험처럼 작가의 안내를 따라 차분히 전시를 둘러 본 후, 작가는 최근 베를린으로의 이사 준비로 매우 분주했다고 말했다. 독일에는 사색을 이끄는 숲이 많아서 철학자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생각나서일까, 그가 베를린으로 간다는 소식이 낫설지 않게 들린다. 숲의 사람처럼 이불 하나, 손가락 하나만 들고 심플하게 떠날 계획이라며 환하게 웃던 작가에게 고향 한국이 그리지 않은지 물었다. 1976년에 일본으로 떠난 후, 그는 지금까지 도쿄에 머물며 작업하고 있다. “지금 시대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저 모두가 같은 하나의 행성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새로운 공기가 필요해요.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게 싫거든요. 사실 외국은 늘 긴장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물론 그 점이 제 성장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편하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조금 더 나 자신을 찾아야죠. 더 멋있어져서 죽어야죠. (웃음) 객관성을 두고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리워할 수도 있고 말이지.”



위 - 《환상의 이면 100609070140》
 컬러 사진 153×102cm 2010
 아래 - 《철로(아라) 4채널 비디오 설치 2007》
 플랫폼 서울 2008 전시 전경

왼쪽 페이지
 《루시》 한벽옥
 239.5×246×291.4cm 2007



이케바나, 생명의 본질에 매료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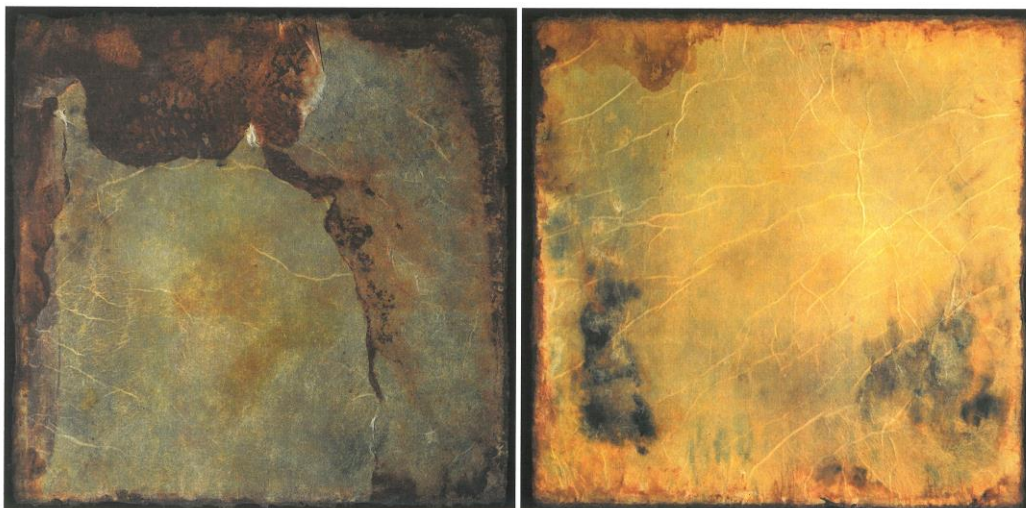
도쿄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최재은과의 두 번째 대화는 새해를 맞은 후 전화로 진행됐다. 그는 지난 해 말 베를린으로 거처를 옮기자마자 다시 아프리카 케냐로 떠난 상태였다. 한국과 6시간의 시차가 나는 케냐로 전화를 걸었다. 질문을 던지는 기자의 시간은 저물어 가는 오후이고, 답을 건네는 최재은의 시간은 아침이다. 같은 '순간'임에도 각자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언뜻 낯설다. 지난 만남에서 못다 한 이야기의 물꼬를 트면서, 우선 소게츠(草月)회관에서 일본식 꽃꽂이인 '이케바나(いけばな)'를 접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부터 물었다.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유학길에 오른 최재은은 당시 아방가르드 예술을 주도하던 소게츠회관에 적응 두게 됐고, 소게츠의 거장이자 영화 감독인 스승 테시가하라 히로시(勲使河原宏)와의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소게츠의 이케바나는 단순한 꽃꽂이가 아닙니다. 식물을 소재로 하는 입체 조형예술이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 그것이 놓인 공간에 의해 창출된 조형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케바나의 매력입니다. 시작부터 살아 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작업을 하면서 생명의 본질에 매료됐어요. 식물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점점 시들어가는 과정을 관찰하며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살아 있는 생명이란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지닌, 흐르는 시간 속의 존재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 말이죠."

작가로 본격 발돋움하기 시작하던 1985년, 최재은은 도쿄 소게츠플라자에 설치된 이사무 노구치의 공간 설치 작품 <천국>을 검은 흙으로 덮고 씨를 뿌린 다음, 시간이 흘러 거기서 싹이 나와 잔디가 자란 후 공간이 푸르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 줬다. 첫 번째 대규모 설치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전시를 통해 그는 비로소 '자른다'는 이케바나의 기본 행위로부터 해방되어 생명과 시간을 작업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다고 기억한다.

이후 펼쳐진 다채로운 작업 중에서도 '시간'에 대한 그의 관심이 가장 물리적이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일 것이다. 1986년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이 작업은 한국 경주, 일본 후쿠이, 케냐 마사이마라와 같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배경을 지닌 지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 일본종이 숲 1986~현재





역의 땅 속에 특별 제작된 종이를 묻어 두고, 3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 후에 그 종이를 꺼낸다. 땅 속 미생물이 만들어 낸 흔적으로 가득한 종이는 지상의 공기와 접하면서 또 다른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자연이 만들어 낸 추상화를 통해 최재은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 등 시간과 생명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케냐에 다시 가 있다. “루시가 발견된 지역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다시 케냐로 왔어요. 아프리카는 영원하면서도 역사적인 곳 같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 자체가 매우 인상적인 곳이에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다소 힘들지만요. 내년에 프라하와 서울에서 전시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재충전하는 동시에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군요. 버릴 것은 버리고 좀 더 단순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재은과의 대화를 떠올리던 중, 내가 그동안 ‘시간’에 대해 진중히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다. 정신없이 삶을 사는 동안 나에게 시간이란 때론 빠르게 지나가는 것, 남겨진 부족함, 혹은 아까운 것일 뿐이었고, 나와 시간의 관계에서 주체는 항상 ‘나’라고 생각했다. 기자는 도쿄에서 전시를 보던 중 “작가가 생각하는 시간이란 우리를 스쳐가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을 통과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작가에게 물었다. 그때까지도 시간이라는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최재은의 깊은 사유를 캐치지 못했기에 던졌을 법한 이러한 질문에, 작가의 현답이 돌아왔다. “통과하나 스쳐 가나 같은 것이죠.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구성하는 본질이죠.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문구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몸을 두 번 적실 수 없다.’ 우리도 결국 하나의 흐르는 존재, 시간 속의 존재일 뿐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입니다. 죽음에 도달하는 유한적인 존재로서 누구든 시간론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요. 그렇기에 시간은 너무나 경이롭고,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적 시각으로 보는 ‘시간’이란 ‘과거에서 미래로 무한히 연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말대로 이 무한성 속에서 죽음을 향하는 유한한 존재는 오직 ‘생명’인 것이다. 우리를 구성한 채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시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거대하고도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시간을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간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도쿄의 어느 오래된 건물 속 숲에서 시간을 느끼고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이다. ●



위 왼쪽 · (과거-미래) 느티나무, 철판
400×400×800cm 1988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설치
오른쪽 · (시간의 방향) 철, 콘크리트, 흰색 자갈
조문 1350×1230cm 1994 삼성의료원 설치
아래 · (선의 공간) 돌, 철 120×120×230m(사리탑)
962×962×125m(물빛동) 1995~98 해인사
성철스님 사리탑